

구라보 - 소재의 뚜렷한 베리에이션을 보인

진즈 패브릭 전시회 개최

구라보는 진즈 패브릭(jeans fabrics) 전시회에서 소재의 베리에이션(variation, 변화)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소재는 컴퓨터 슬럽(computer slub)으로 만든 얼룩실인 컴팩트(compact)사 “클리어 스카이(Clear sky)”로 잔털이 거의 없으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 냈다.

PTT(polytrimethylene terephthalate)섬유 “T-400”을 혼용한 소재들도 전시되었다. 이소재로 만든 데님은 가벼우면서도 스트레치(stretch)의 수축성(收縮性)이 매우 우수하면서도 플랫감(flat感)도 뛰어나게 좋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가벼움과 강도,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중공 나일론섬유 “세보나 삼론”을 혼용한 소재로는 면이나 스판덱스(spandex)와의 복합으로 만든 색다른 소재들이 있다. PTT섬유 혼용소재와 “세보나 삼론” 혼용소재들은 여러 색으로 염색된 소재도 전시되었다.

염색소재로서는 32번 물들인 쪽(청람, 靑藍)색과 같은 정도로 진한 인디고 블루(indigo blue)의 농도를 보이는 “32 딥(dip)”소재를 전시하였다. 이 “32 딥”을 진즈의 세탁가공에서 퇴색의 부분이나 정도가 중고풍(中古風)을 뚜렷하게 보이게 하는 데 가장 적합한 깊은 색으로 알려져 있다. ♣